

“새로운 전북 미래 가능할 중요한 시기”

도, 대규모 포럼·수소 생산기지 준공 등 이번주 도정 주요일정 공개… “새만금 신공항 집행정지 대응 총력”

전북특별자치도 김철태 대변인이 지난 19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22~28일 추진될 주요 업무와 현안들을 상세히 밝혔다. 이번주에는 국내 첫 상업용 청정 수소 생산기지 준공, 대규모 전국 포럼 개최 등 굵직한 행사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새로운 전북의 역동적인 미래’를 가능할 한 주가 될 전망이다. 22일에는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가 정읍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리는 주의 시작을 알린다.

같은 날 오전 9시 30분에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 지원 추진 TF 회의가 개최되어 새만금 신공항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정읍에서는 전북자치도의회 의원과 사무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연찬회가 열려 의원 및 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23일 오후에는 제30회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본 심사위원회가 열려 혁



전북특별자치도 김철태 대변인이 지난 19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22~28일 추진될 주요 업무와 현안들을 발표하고 있다.

신, 경제, 문화, 나눔 4개 분야의 최종 수상자를 선정예정이다. 같은 날 남원 스위트 호텔에서는 ‘생명 경계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 특화 발전’을 주제로 한 전북 포럼이 개최된다. 포럼은 24일까지 진행된다. K-팝 및 K-문화 관광 산업, 농생명 산업, 산업관광지구, 새만금, 물포럼 등 다채로운 분야를 망라하는 세션들을 통해 지역 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전주 컨벤션센터 기공식(정주시 주관)과 도립국악원 개관식도 같은 날 예정되어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4일 오후 2시, 부안 신재생에너지 단지에서는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 준공식이 열린다. 25일부터 이틀간 라한호텔과 전주대학교 일원에서는 제6회 지니 포럼이

열려 금융 상품, 핀테크 스타트업, 청소년 프로그램 등 젊은 세대와 일반 도민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진다. 또한 같은 날 오전 9시, 국회에서는 박희승 국회의원실 주관:으로 제2 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한 국회의원 기자회견이 열려 전북의 숙원사업 추진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이 모일 예정이다.

이어, 오후 6시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는 전주 드론축구 월드컵 개막식이 열린다. 26일에는 세계 사에 전북 비엔날레 개막식(한국소리문화의 전당)과 노인의 날 기념식(도청 공연장) 등 주요 문화·복지 행사가 이어진다. 이외에도 미국 통상정책 대응반 회의, 중앙 지방 정책협의회 등 주요 정책 회의가 열린다. 이와 함께 이번주에는 행정부지사가 명절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을 통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 민생 돌보기에다 소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지난 19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2025년 국가직 수습사무원 전북사랑도민증 수여 및 송별 간담회’가 열렸다.

“여러분의 미래, 전북이 응원하겠습니다”

도, 국가직 수습사무원 17명 전북사랑도민증 수여·송별 간담회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경제부지사 주재로 ‘2025년 국가직 수습사무원 전북사랑도민증 수여 및 송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수습사무원 대표 이치우 사무관은 소감을 통해 “수습 기간 동안 현장의 사들, 시·군 등 최일선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중앙의 정책이 현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배울 수 있어서 뜻깊었다”며 “각 중앙부처로 복귀한 뒤에도 전북에서 배웠던 경험을 잊지 않고,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만호 기자

경제부지사 격려 말씀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중앙부처 복귀 이후에도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습사무원 대표 이치우 사무관은 소감을 통해 “수습 기간 동안 현장의 사들, 시·군 등 최일선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중앙의 정책이 현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배울 수 있어서 뜻깊었다”며 “각 중앙부처로 복귀한 뒤에도 전북에서 배웠던 경험을 잊지 않고,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만호 기자

산업·시민이 함께… ‘제3회 미래 특장차산업 박람회’ 성료

특장차·자율주행 등 전시

시민 체험형 프로그램 강화

김제 청년축제와도 연계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김제시 실내체육관 일원에서 ‘제3회 미래 특장차산업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 유일의 특장차 집적화 단지 설립 기반으로 설계·제작·검사·인증·연구개발·인력양성까지 아우르는 전 주기 지원체계를 널리 알리고, 미래 기술 방향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막식 이후에는 △특장차 정책세미나 △수출상담회 △아이디어 경진대회 △산업 중심 프로그램이 이어져 기업 간 협력과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를 넓혔다. 전시장에는 특장차, 자율주행차, 특장 농기계, 첨단 모빌리티 기술혁신 제품 등이 대거 출품됐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전북은 특장차 산업을 미래차 산업의 핵심 축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뿐 아니라 특장차 산업에 대한 대중적 인식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김제시 실내체육관 일원에서 ‘제3회 미래 특장차산업 박람회’ 개막식이 열린 가운데, 정성주 김제시장,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시민과 가족 단위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도 강화됐다. 고소작업차 탑승, 전기 굴삭기 조종, 드론 제작·조종, 어린이 특수자동차 그림그리기 대회, 자동차·특장차 만들기 체험 등이 준비됐다. 또한, 김제 청년축제와도 연계해 청년과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형 박람회로 치러지며, △다양한 체험행사와 놀이공간 △기념식 △청년기념의날 퍼포먼스 △청년예술인 공연 △가요버스킹 △마임 및 DJ공연 등으로 진행되어 큰 호응을 받았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앞으로도 시민 맞춤형 콘텐츠를 더욱 강화해 지역의 발전 가능성 제고와 공유의 장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청년이 김제에서 비전을 꿈꾸고 미래를 설계하며,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밝히는 기회의 장을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특장차 산업을 미래차 산업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6년 제1특장차단지(306억원, 32만7,903㎡)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제2특장차단지(687억원, 33만6,322㎡)를 추가 조성해 총 60개 기업이 입주

가능한 대규모 산업클러스터를 완성할 계획이다. 또한 2027년까지 상생거점단지(249억원)를 조성해 종사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생활 인프라도 함께 구축한다. 아울러, 특장차 자기인증센터(132억원)를 2017년 완공한 데 이어, 특장차 종합지원센터(84억원) 및 검사지원센터(72억원)를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확충해 생산부터 인증·튜닝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고향에서 새 성장동력 찾자’… 전북 출신 출향기업인 투자설명회

출향기업인 50여명, 고향의 발전 비전·새로운 투자 기회 모색의 장 마련·핵심 투자현장 견학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새만금과 부안 일원에서 ‘출향기업인 대상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북 출신 기업인 50여명이 참석해 고향의 발전 비전과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전북이 추진 중인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수변도시, 농공단지 등 핵심 투자 현장을 견학하며 지역 발전상을 확인했다. 현장 방문을 통해 전북의 산업 인프라와 성장 잠재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출향기업인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날 일정은 △다산 DTS 군산사업장 방문 △새만금 33센터·수변도시·국가산업단지 현장 시찰 △전북 투자환경 설명회 △전북 발전 방향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둘째 날에는 △참프레(부안 제2농공단지) 방문 △산유도 및 고군산군도 탐방 △군산 근대화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새만금과 부안 일원에서 ‘출향기업인 대상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리 이상당 방문 등이 이어졌다. 이번 설명회는 단순한 투자 유치를 넘어 출향기업인과 지역 간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새만금 중심의 RE100 산업단지 조성,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기지 구축, 국내 최초 피지컬 AI 도입 등 미래 산업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는 전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행사로 구축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참여 기업과 개별 투자 상담을 진행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책을 구축할 예정이다. 출향기업인들의 고향 투자 의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투자보조금, 입지 지원,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기업지원정책을 연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인프라 확충, 규제 완화, 인력 양성 등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고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 이차전지

업폐수 처리 설명회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지난 19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이차전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차전지 산업폐수의 처리와 배출 규정 등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를 가졌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차전지 산업폐수는 기업이 자체 처리한 처리수를 국립환경과학원의 염인정 심사를 득한 후 해양방류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추석 앞두고 도민 건강 지킨다

식중독·대기오염·감염병 등 신속 대응…안전한 명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식중독·감염병·대기오염 대응 비상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명절 기간 동안 성수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감염병 및 대기오염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도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원은 식품·감염병·대기질 분야를 중심으로 단계별 대응을 추진한다. 9월 5일부터 10월 2일까지 제수용 및 선물용 성수식품·농산물을 집중 수거·검사에 부적합 식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9월 15일부터 24

일까지 별초 등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진드기 매개 감염병 감시를 강화한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식중독·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비상근무 체계를 운영하며, 대기질 분야는 10월 3~9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고농도 오염 발생 시 즉각 대응한다. 전경식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민 여러분이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연구원 전 직원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식품 구매 시 위생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야외활동 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도내 농촌 지역 인력난 해소 제도적 근거 마련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도의회 본회의 통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사진)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가 도의회 제4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원계획 수립에 앞서 인력 수요·공급 현황을 조사하는 등 이행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정책

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과 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해 고용주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근로환경, 고용 실태 등을 지도·점검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임승식 의원은 “이번 조례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합리적인 운영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며,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권익 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을 제공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